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家計變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ange of Household - Economy Incidental to the Family Life Cycle

漢陽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教授: 徐炳淑

*Department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Seo Byung Sook*

漢陽大學校 韓國生活科學研究所

助教: 林惠敬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 Lim Hye Kyung*

目 次

I. 序 論	III. 研究方法
1) 問題의 提起	1) 調查道具
2) 研究의 方法과 目的	2) 調查節次
II. 理論의 背景 및 關聯研究 考察	IV. 結果 및 分析
1) 家庭生活週期의 基本概念	1) [研究問題 1]의 結果와 分析
2)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家庭經濟의 變化에 대한 關聯研究	2) [研究問題 2]의 結果와 分析
3) 研究問題 設定	V. 結論 및 提言
	* 參考文獻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data for a reasonable home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ng the change of home economy conditions incidental to the family life cycle, also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family-life cycle.

The data investigation using the questionnaires method was conducted on housewives in Seoul as the central census tract. Housewives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ere chosen by the method of the purpose-sampling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socio-economical strata.

Nine hundred and fort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housewives but seven hund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ly five hundred and ten question-

aires of the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d the percentage of collected data, first of all, were founded in order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o classify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the correlations of the classifying factors among each group were examined χ^2 Test and One-Way ANOVA were applied to explore the differences among each stage of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And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was analyzed by Two-way ANOVA.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marriage-period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 first child were selected as the classifying factors through analyzing correlation among the age, the marriage-period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ir childre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amily life cycle were classified into seven stages : Stage 1 ; Establishment Stage 2 ; Preschool family Stage 3 ; Elementary school family Stage 6 ; Adult period family Stage 7 ; Marriage period family.

2) The change of household economy incidental to the progress of family life cycl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of variables (except the other member of family's income).

Stage 1 : Though the husband's income and the income from property are on a low level, the total income is on a high level due to the housewife's income.

Stage 2 : The total income is on a low level owing to the decrease of housewife's income, though the husband's income keep growing.

Stage 3 : Owing to the increase of husband's income, the cost of living as well as the total income keeps growing but the savings are on the decrease.

Stage 4 : Compared with Stage 3, the total income tends to be on a low level but the living expenses are on the increase.

Stage 5 : The husband's income is on the highest level in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The total income and the living expenses are on a high level.

Stage 6 : The income of husband and housewife are on the remarkable decrease but the children's income is on the increase.

Stage 7 : Owing to the increase of the children's income and the income from property, the total income is on the highest level in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3) Considering the effect of socio-anthropological variables on the conditions of household-economy, family system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income. The husband's occupation exerts a significant effect upon the housewife's and children's income. The husband's schooling exercises an effect upon the children's income. S.E.S has a important effect on the income of husband, housewife and children.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change of household-economy conditions is incidental to the progress of family life cycle. Therefore, a suitable measure to cope with the desire of family and the conditions of household-economy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arry on a reasonable home management.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家庭經濟는 家族員의 健全하고 文化的인 生活의 要求充足을 可能하도록 家族生活의 經濟的 充足과 發展을 도모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橫山光子, 1965:1).

그런데 한 家庭의 經濟는 家族生活의 必然的인 變化發達과 物價나 賃金, 金融같은 經濟 및 社會政策 等の 諸般 社會的 要素의 變化發達에 따라 變化하게 된다. 특히 家族의 發展과 더불어 家計의 所得發生흐름과 消費發生흐름 間에는 커다란 時間적 乖離가 存在하게 된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82). 따라서 家庭經濟運營에는 長期的인 均衡이 要求되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家庭生活週期의 概念을 적용시킬 수 있다.

家庭生活週期란 一般的으로 家庭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一生을 家族構成과 家族生活의 變化에 근거하여 分析하는 概念이다. 그러한 속성 때문에 家庭生活週期는 家族發達의 變化에 따른 家計의 流動性을 分析하는데 편익을 갖는다고 본다. 즉, 合理的인 家計運營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家庭生活週期의 概念分析을 통한 家計分析이 要求되는 것이다.

2) 研究의 方法과 目的

우리나라에서 行해진 家庭生活週期에 대한 研究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家庭生活週期 1週期와 各 段階의 지속기간, 家族形態나 構成의 差異에 따른 가정생활주기의 변화같은 家庭生活週期의 內的變動에 對해 研究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家庭生活週期를 變數로 하여 家庭生活이나 住宅問題 等を 分析한 것이다. 前者에는 주로 史的 회상법, Cohort 分析法 등의 研究方法이, 後者에는 橫斷分析法이 많이 使用되었다.

橫斷分析法은 서로 다른 段階에 있는 家族의 橫斷面을 同一時點에서 同一家族의 發達段階처럼 段階進行에 따라서 連結시키는 것이다. 이 方法은 時間進行에 따른 變動을 無視하는 제한점을 갖으나 (森岡清美, 1973: 105~107), 家庭의 一生을 한 時點에서 巨時的으로 통찰하기에 적절한 方法이다.

本 研究에서는 時間進行에 따른 家計變動의 內的構造를 分析하고자 橫斷分析法을 取하였다.

本 研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家族의 特性을 감안하여 家庭生活週期의 段階를 區分한다.

둘째, 그 段階區分에 의거하여 家庭生活週期의 進行에 따른 家庭의 經濟的 變動을 밝힌다.

셋째, 段階別 家計狀況에 社會·人口學的 變因이 미치는 影響을 分析한다. 그리하여 窮極的으로는 計劃的인 家計運營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理論의 背景 및 關聯研究 考察

1) 家庭生活週期의 基本概念

(1) 家庭生活週期의 定義

週期(Cycle)란 "일련의 사건들이 反復하거나 反復되는 것, 혹은 완전히 순환되는 것" (Duvall, 1977:152)으로써 일정한 시기마다 같은 現象이 동일하게 반복될 때 이 일정한 시기를 그 現象의 주기라고 한다 (徐炳淑·任貞彬, 1982: 24). 生活週期라는 概念은 自然科學에서 유래된 것으로 家庭生活週期의 概念은 家族을 有機體로 간주하여 科學의 概念을 家族의 동태파악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森岡清美, 1974: 276). 즉, 家族의 주요한 生活週期 내지는 變化를 時間의 흐름에 따라 考察하려는 것으로 家族員들의 연령과 동일한 概念이 아니다. 결혼부터 夫婦中 한쪽, 혹은 양쪽 배우자가 死亡할 때 까지의 한 家庭의 一代記인 것이다 (Fitzsimmons & Williams, 1973: 179).

家庭生活週期에는 자기 행하는 活動이나 內容이 고유하게 다른, 뚜렷이 구분되는 段階가 나타난다. 그런데 家庭生活週期의 段階는 學者에 따라 크게는 3段階부터 24段階까지 다양하게 區分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代表的인 것은 다음 표와 같다.

(2) 家庭生活週期의 意義

家庭生活週期는 家庭生活를 段階別로 長期的으로 考察하여 各 段階가 지니고 있는 特性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家庭生活의 리듬과 調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효한 것이다 (Duvall, 1971: 113).

家庭生活週期는 社會學的 觀點에서의 個人과 家族研究에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이에 대해 Lansing과 Kish(1964), 그리고 Goode(1964) 등은 個人의 행위들이 해하는데 個人이 家庭生活週期에 對한 位置파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崔在錫(1975)과 李孝再(1983)는 家族의 經濟力이나 權力, 役割같은 家族內 人間關

表. 學者別 段階區分

Sorokin 등(1931)	E. L. Kirkpatrick (1934)	T. Agan(1950)	H. F. Bigelow(1950)	J. B. Lansing and L. Kish (1957)	E. H. Duvall(1957)	R. H. Rodgers (1962)	이은숙(1969)
1. Married couple 2. Couple with one or more children 3. Family with one or more adult self supporting children 4. Couples growing old	1. Preschool family 2. Grade school family 3. High school family 4. All adult family	1. The beginning family 2. The expanding family 3. The launching family 4. The middle-age family 5. The old-age family	1. Establishment 2. Childbearing and preschool stage 3. Elementary school stage 4. High school stage 5. College school stage 6. Period of vocational adjustment 7. Period of financial recovery 8. Retirement stage	1. Young single 2. Young married no children 3. Young married youngest child under six 4. Young married youngest child six or older 5. Older married, children 6. Older married no children 7. Older single	1. Beginning families 2. Childbearing families 3.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4. Families with school-age children 5. Families with teen-agers 6. Families as launching centers 7. Families in the middle years 8. Aging families	• beginning families • families with infants • preschool families with infants • preschool families • school age families with infants • school age families with preschoolers • school age families with teenagers • school age families with infants • teenage families with pre schoolers • teenage families with school-agers • teenage families with young adult families • young adult families with preschoolers • young adult families with school-agers • young adult families with teenagers • young adult families with infants • launching with preschoolers • launching with school-agers • launching with teenagers • launching with young adult • middle years • aging • widowhood	1. 학령이전기 가족 2. 학령기가족 3. 청소년기 가족 4. 청년기가족 5. 사별가족

係研究에서 家族의 發展의 段階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家庭生活週期는 家族計劃, 복지사업 등과같은 實踐的인 社會政策樹立에 有用한 자료가 된다(金泳模, 1965: 43; 金善姬, 1982: 6).

한 家庭이 家庭生活週期 가운데 처한 位置를 알면 相對的인 所得水準, 消費者行動, 아내의 就業與否, 夫婦의 結婚滿足度, 家族의 葛藤, 父母와 子女의 關係等 家庭生活的 重要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Duvall, 1977: 157).

요컨대 家庭生活週期는 家族行動뿐 아니라 家庭生活的 經濟的 측면과 人間關係構造를 설명하는 변수로써, 그리고 實踐的인 政策樹立의 要因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家庭經濟의 變化에 대한 關聯研究

家庭經濟는 일차적으로 所得과 消費, 그리고 貯蓄으로 설명할 수 있다. 所得은 家庭生活的 經濟的인 根源으로써 家庭經濟의 구체적 운영을 위한 支出의 최고한도를 제시하는 基準이 된다. 家庭生活的 維持와 發展에 必要한 財貨와 用役의 획득에 必要한 支出의 총계는 生活費 혹은 生計費라고 하는데 한 家庭의 收入은 生活費와 貯蓄으로 分配된다.

家庭의 經濟的 變動을 家庭生活週期에 따라 分析한 최초의 學者는 Rowntree였다. 그는 York시의 빈곤한 勞動者家族를 對象으로 하는 研究에서 家計와 家業의 浮沈이 家族週期和 中대한 關聯을 갖는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즉, 家族의 一生동안 家計는 5번의 다른 狀態에 있게되는데 아동기와 子女가 어린 시기, 그리고 老年期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時期이며 青年期和 장년기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時期인 것이다(森岡清美, 1977: 2에서 재인용). Rowntree 이후 Tchajanow는 農村家族의 크기와 構成을 消費力計數(V)와 勞動力計數(A)로 환산하여 그 비(V/A)를 산출한 결과 家庭形成後 14년경에 最高值에 달하며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Sorokin은 境況의 大·小 및 家計의 증감이 變動하는 過程을 家族構成과 關連시켜 分析하였다. 그리하여 夫婦만의 1段階는 비교적 經濟的으로 安定된 狀態이나 子女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는 2段階는 가장 어려운 時期

이며 夫婦와 子女가 함께 일할 수 있는 3段階에는 經濟的으로 가장 풍요롭고 夫婦가 勞動力을 상실하고 子女가 獨立하는 4段階에 다시 빈곤해 진다고 하였다. 유사한 研究에서 Blackwell은 農村家族의 財産蓄積과 現金收入등은 첫 子女가 10~15세인 第2段階의 후기와 3段階의 전기에 가장 곤궁하며 첫 子女출생후 36年以上 경과된, 同居子女가 없는 4段階도 不安定한 時期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Kirkpatrick 등은 支出은 子女의 연령을 기준으로 區分한 4段階中 4段階에 가장 많으나 收入은 段階別로 크게 차이없다고 하였다(森岡清美, 1973: 19~26에서 재인용). 西洋에서 행해진 이러한 연구의 影響을 받아 小林茂(1961)은 消費家族員數를 農家の 勞動力(所得經濟能力)으로 나누어 家族의 經濟力을 分析하였다. 그 結果 結婚後 11년부터 16년경까지 經濟的으로 빈곤하나 19년경부터 회복된다는 것, 즉 所得經濟力이 最大인 時期는 후계자(あととり)가 結婚하고 막내 子女가 약 15歲에 해당하는 時期라는 것을 發見하였다. 崔在錫(1964)은 우리나라 農民家族는 結婚期間 11~15년에 그 綜合經濟力(生産力合計/消費力合計)이 最低에, 1~5년에 最高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農村家族의 家計를 家庭生活週期에 따라 分析한 것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 家庭의 經濟力이 最高인 時期가 子女가 成長하여 일을 할 수 있는 時期인 結婚期間 16~25년경인데 비해 日本과 우리나라는 첫 子女(후계자)의 結婚後 1~5년으로 약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西歐의 경우 夫婦家族의 形態를 取하고 日本과 우리나라는 直系家族의 形態를 주로 표방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結婚期間에 따라 收入曲線과 支出曲線을 그려 家計의 均衡을 把握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시도가 있었다. Bigelow(1938), Burk(1966), Nickell과 Dorsey(1967), Gross(1973) 등이 그러한 方法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Bigelow는 都市家庭에 있어서 支出曲線이 收入曲線을 上廻하는 경제적 위기는 남편이 40~47歲 일 때와 退職한 후의 2회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崔銀淑(1966)은 서울의 中流俸給生活者의 家計에 있어서 結婚期間 10~19년까지 所得이 短期間에 급증하여 所得과 支出間에 큰 差異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既存 統計資料를 利用, 家口主의 一生週期的 觀點

에서 家計를 分析한 것이 있다. 이것은 家庭生活週기와 개념상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나 부족한 대로 家計의 變動을 이해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한다. Fisher는 미국 家計의 所得規模는 家口主의 年齡 40代를 前後하여 극대치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薛鳳植, 1978에서 재인용). 江見康一등(1982)은 日本 家計의 實收入은 家口主의 연령 20代부터 增加하여 50代를 고비로 감소하는데 20代에는 實收入에 아내의 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世代보다 높고 30代~40代前半까지는 家口主 收入의 비율이 88%에 이르며 40代~50代 전반에 다시 아내의 收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費는 20代부터 50代까지 계속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家計에 있어 家口主의 所得과 기타 家口員의 所得의 합은 20代와 30代初期에는 평균이하 수준이며 40代를 절정기로 50代 후반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편, 資產所得은 50代중반에 최고에 이르고 支出은 40代후반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貯蓄推進中央委員會, 1982).

家族員의 就業率과 收入에 관하여 Glick(1961)는 아내의 就業率이 結婚初期에는 40%, 자녀양육기에 15%, 그리고 家口主의 연령이 35~54歲인 때면 약 2/3 가량이 취업하게 되며 相對的으로 家族收入에도 變動이 생긴다고 하였다. Lansing과 Kish(1964)는 子女 出生前에 아내의 就業率이 57.2%로 가장 높고, 6歲以下인 3段階에는 21.0%로 낮은 水準이나 4段階에는 39.6%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李溫竹(1969)은 학령이전기나 학령기 초기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아내의 就業率은 이후에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收入이나 生活費는 학령이전기 家族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학령기以後 계속 높은 水準을 維持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結果는 Glick이나 Lansing과 Kish의 研究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李의 研究가 있는 후 지난 10年間 우리나라 女性의 연령계층별 就業率이 10代후반과 20代후반은 감소추세를, 35~64歲는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즉 既婚 女性의 就業率에 많은 變化가 생겼으며 이로써 家庭生活, 특히 家庭經濟에 많은 變動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研究問題 設定

家計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

겠지만 特히 個人의 勤勞所得의 격차는 蓄積된 人間資本 즉 勤勞生産性의 差異에 있으며 그 現狀의 原因으로 職種別, 學歷別 差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 家庭의 家計는 所有하고 있는 人的 資本, 즉 家族員의 勞力과 職業에 따라 差異를 보인다.

또한 社會·經濟的 地位(S. E. S)는 家庭의 性格을 規定짓는 概念으로 所得, 職業, 教育水準等を 함께 考慮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家族은 전통적인 直系家族의 形態가 점차 夫婦家族化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形態로서 夫婦家族과 直系家族, 그리고 複合家族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區分에서 한가지 家族形態만을 中心으로 分析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本 研究에서는 家族形態를 무시하고 응답자를 基準으로 段階區分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區分에 의한 편이를 줄이기 위해 家計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으로 家族形態를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家族形態, 남편의 職業, 남편의 學歷, 社會·經濟的 地位(S. E. S)를 變因으로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

[研究問題 I]

① 收集된 調查對象의 人口의 變因을 근거로 할 때 家庭生活週期の 段階는 어떻게 區分되는가.

② 家庭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라 家庭의 社會·人口學的 變因은 어떠한 特性을 갖는가.

[研究問題 II]

① 收入과 生活費, 그리고 貯蓄은 家庭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라 어떻게 變化하는가.

②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別 收入과 生活費, 貯蓄에 家族形態等の 社會·人口學的 變因은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

III. 研究 方法

1) 調查道具

本 研究의 調查道具는 研究者가 제작한 質問紙로써 各 問題의 難易性과 客觀性, 그리고 質問紙의 言語構成 및 應答形式, 問項의 배열등에 나타나는 問題點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修正한 것이다. 質問內容은 調查對象家庭의 一般的인 特性을 把握하기 위한 6問項,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區分을 위한 8問

項, 그리고 家計에 대한 25問項으로 構成되었다.

2) 調査節次

調査對象은 서울시에 居住하고 있는 家庭으로써 地域的인 차이를 없애고 社會·經濟的 階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有層標集하였다. 子女가 學童期에 있는 家庭은 學부형에게 배부, 회수하였으며 子女出産前 新婚期의 家庭은 研究者와 訓練된 調査者가 直接 訪問하여 主婦로 하여금 직접 記載하도록 하였다. 모두 940 부를 배부하여 700 부(74.4%)가 회수되었고 그 중 기입누락이나 記載不實로 研究分析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510 부(72.9%)를 실제 分析에 사용하였다.

分析方法是 먼저 家庭生活週期와 관련되는 人口學的 變因의 集團間 頻度와 百分率을 산출하여 家庭生活週期의 段階를 區分하고 段階別 調査對象의 社會·人口學的 變因의 頻度와 百分率을 구하였다. 家庭生活週期의 段階別 家庭의 經濟的 變化를 分析하기 위해 χ^2 검증법과 一元變量分析法을 併用하였으며 家族形態等의 社會·人口學的 變因이 段階別 家計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위해 二元變量分析하였다.

모든 資料는 고려대학교 부설 전자계산소의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을 使用하여 分析·處理하였다.

3) 研究의 制限點

- (1) 質問紙를 통해 調査하였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答하는 항목에 精確한 數值를 기대하기 어렵다.
- (2) 家計調査에 수반되는 各 항목에 대한 概念差에 따른 偏見이 作用했으리라고 본다.
- (3) 標本數가 적고 段階別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研究結果를 一般化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4) 子女 出産前 家庭이나 미취학기 家庭을 標集함에 있어서 調査者의 의도가 介入되었다.
- (5) 子女가 모두 독립하고 난 段階에 대한 研究가 누락되었다.

IV. 結果 및 分析

1) [研究問題 I]의 結果와 分析

- (1) 收集된 調査對象의 人口學的 變因을 근거로 할 때 家庭生活週期의 段階는 어떻게 區分되는가.
家庭生活週期에 段階가 있다는 것은 家庭 一生의 各各 다른 지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變化를 理論

表 1-1. 男便과 아내의 年齡

남편연령 \ 아내연령	남편연령										사 망	계
	만24세 이 하	만 25 ~29세	만 30 ~34세	만 35 ~39세	만 40 ~44세	만45 ~49세	만50 ~54세	만 55 ~59세	만60세 이 상	사 망		
만 24 세 이 하	2	27	2	—	—	—	—	—	—	—	—	31
만 25 ~ 29 세	—	—	53	6	—	—	—	—	—	—	—	59
만 30 ~ 34 세	—	1	16	43	9	—	—	—	—	—	—	69
만 35 ~ 39 세	—	—	—	26	61	5	—	—	—	—	1	93
만 40 ~ 44 세	—	—	—	—	39	53	17	1	—	—	—	110
만 45 ~ 49 세	—	—	—	—	1	27	38	7	3	—	—	76
만 50 ~ 54 세	—	—	—	—	—	22	23	2	5	—	—	52
만 55 ~ 59 세	—	—	—	—	—	—	—	4	3	5	—	12
만 60 세 이 상	—	—	—	—	—	—	—	—	6	2	—	8
사 망	—	—	—	—	—	—	—	—	—	—	—	—
계	2	28	71	75	110	107	78	14	17	8	—	510

의므로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區分因子가 있다는 것이다. Rodgers는 한 학자에 의해 개발된 段階區分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使用할 수도 있지만 特別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 段階를 區分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Nock, 1979: 17에서 재인용). 즉 段階를 區分짓는 特定的 要素는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家庭生活週期 研究者들이 段階區分에 使用한 要素는 子女의 年齡과 教育狀態, 結婚期間, 家族構成등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男便의 年齡과 아내의 年齡을 보면 表 1-1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相互 밀접한 聯關性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結婚期間과의 관계는 다음 表 1-2에 나타나 있다.

즉 夫婦의 年齡과 結婚期間도 역시 相互 밀접한 關係를 보이며 正的으로 發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써 남편과 아내의 연령, 그리고 結婚期間의 세 변인은 結婚期間으로 代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區分에 있어서 子女의 存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特別히 勤勞者家族의 경우 家族發展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子女의 出生과 성장과정이다(森岡清美, 1974: 307). 그러므로 家計의 變動을 分析하려는 本 研究의 段階區分에는 子女를 考慮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結婚期間과 子女의 教育狀態와의 關係를 보았다.

表 1-3에서 보면 結婚期間과 첫 자녀의 教育狀態는 正的인 關係를 보이면서 進行되는데 段階가 높을수록 막내자녀의 教育狀態는 광범위하게 散在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家族의 特性이었던 多産과 出産期間의 長期現狀의(李溫竹, 1969: 38~39) 잔존이라 생각된다. 출산기간이 긴 家庭은 어느 자녀를 基準으로 段階를 區分할 것인가가 問題되지만 家庭은 첫 자녀와 더불어 成長하며 다음 子女들이 태어나면 첫 자녀 成長過程의 一部分을 다시 反復하게 된다(Duvall, 1977: 145).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結婚期間을 參照하고 첫 子女의 教育狀態를 基準으로 家庭生活週期를 모두 7 段階로 區分하였다.

- 1 段階: 子女出産前 夫婦만의 家庭
- 2 段階: 첫 子女가 乳兒이거나 未就學인 家庭
- 3 段階: 첫 子女가 國民學校에 다니는 家庭

- 4 段階: 첫 子女가 中·高等學校에 다니는 家庭
- 5 段階: 첫 子女가 大學校나 大學院에 다니는 家庭
- 6 段階: 첫 子女의 教育이 끝나고 아직 既婚子女가 없는 家庭
- 7 段階: 첫 子女의 教育이 끝나고 既婚子女가 있는 家庭

(2) 家庭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라 社會·人口學的 變因은 어떠한 特性을 갖는가:

① 人口의 特性

1. 夫婦의 年齡

1 段階부터 4 段階까지는 段階가 높아질수록 年齡도 높아지는 경향이나 5, 6, 7 段階는 年齡別 差異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後期の 세 段階는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즉 한, 두 段階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2. 子女의 數와 나이差

斷産의 여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段階가 낮아질수록 子女數가 적고 나이差가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現狀은 1962년 이래 실시된 家族計劃事業과 경제개발계획등의 社會·經濟的 變動으로 因하여 1960年代 後半부터 本格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出産力의 低下(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 1977: 41)로 해석될 수 있겠다.

3. 家族形態

擴大家族은 1, 3, 4, 7 段階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段階에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一定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家族形態가 점차 核家族化하고 있다고는 하나 結婚과 同時에 완전히 獨立하는 西歐의 核家族과는 그 性格에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 段階에 비해 2 段階에 核家族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結婚後 短期間은 父母와 同居하다가 分家한 후 父母世代가 老年期에 이르면 다시 同居하는 變形的인 直系家族의 形態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② 社會·經濟的 特性

1. 男便의 學歷

段階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男便의 職業*

註 * 韓國標準職業分類에 따른 小分類表(國立中央職業安定所, 韓國職業辭典, 1982)에 의거하여 9 범주로 分類한 뒤 職業의 社會的地位와 所得의 獲得方法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職業끼리 6 種類로 區分하였다(단, 男便이 死亡한 경우는 無職으로 처리하였다).

表 1-2. 結婚期間과 夫婦의 年齡

결혼 생활기간	아내의 연령		만 24세 이하		만 25~29세		만 30~34세				만 35~39세			만 40~44세				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만 60세 이상		합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만 24세 이하	만 25 ~29세	만 30 ~34세	만 30 ~34세	만 35 ~39세	만 25 ~29세	만 30 ~34세	만 35 ~39세	만 40 ~44세	만 35 ~39세	만 40 ~44세	만 45 ~49세	사 망	만 40 ~44세	만 45 ~49세	만 50 ~54세	만 55 ~59세	만 40 ~44세	만 45 ~49세	만 50 ~54세	만 55 ~59세	만 60세 이상	만 50 ~54세	만 55 ~59세	만 60세 이상	사 망		만 55 ~59세	만 60세 이상	사 망	만 60세 이상	사 망
만 1년 미만			1	16	2	1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2
만 1~4년			1	11	-	35	4	1	6	3	-	1	-	-	-	-	-	-	-	-	-	-	-	-	-	-	-	-	-	-	-	-	62	
만 5~9년			-	-	-	7	2	-	4	20	1	4	3	-	-	-	-	-	-	-	-	-	-	-	-	-	-	-	-	-	-	-	41	
만 10~14년			-	-	-	-	-	-	4	18	8	17	23	1	-	3	3	-	-	-	-	-	-	-	-	-	-	-	-	-	-	-	77	
만 15~19년			-	-	-	-	-	-	2	-	4	33	3	1	28	32	5	-	1	3	1	-	-	-	-	-	-	-	-	-	-	-	113	
만 20~24년			-	-	-	-	-	-	-	-	-	-	1	1	-	8	18	10	-	-	23	34	6	3	14	11	-	3	1	-	2	-	135	
만 25~29년			-	-	-	-	-	-	-	-	-	-	1	-	-	-	1	1	-	-	2	1	-	3	3	-	2	-	1	-	-	14		
만 30년 이상			-	-	-	-	-	-	-	-	-	-	-	-	-	1	1	-	-	1	1	-	-	5	5	2	-	3	2	3	6	2	36	
합			2	27	2	53	6	1	16	43	9	26	61	5	1	39	53	17	1	1	27	38	7	3	22	23	2	5	4	3	5	6	2	510

表 1-3. 結婚期間에 따른 子女의 教育狀態

결혼 생활기간	첫자녀의 교육상태		자녀없음		미취학		유치원재학		국민학교재학				중학교재학				고등학교재학				대학(원)재학				교육끝남		합						
	자녀의 교육상태	첫자녀 교육상태	미취학	유치원 재학	국민학 교재학	중학 교재학	고등학 교재학	대학 재학	유치원 재학	국민학 교재학	중학 교재학	고등학 교재학	대학 재학	유치원 재학	국민학 교재학	중학 교재학	고등학 교재학	대학 재학	유치원 재학	국민학 교재학	중학 교재학	고등학 교재학	대학 재학	대학원 재학									
만 1년 미만			27	5	-	-	-	-	-	-	-	-	-	-	-	-	-	-	-	-	-	-	-	-	-	32							
만 1~4년			15	30	16	-	1	-	-	-	-	-	-	-	-	-	-	-	-	-	-	-	-	-	-	62							
만 5~9년			2	4	7	-	-	1	15	5	7	-	-	-	-	-	-	-	-	-	-	-	-	-	-	41							
만 10~14년			-	-	-	1	1	4	15	12	26	-	2	11	1	-	1	-	-	-	-	-	-	-	-	77							
만 15~19년			-	-	-	-	-	1	-	1	2	5	2	30	4	-	3	3	36	18	4	-	1	1	-	113							
만 20~24년			-	-	-	-	-	-	-	1	-	-	1	-	1	-	-	7	6	-	1	11	17	23	24	-	135						
만 25~29년			-	-	-	-	-	-	-	1	-	-	-	-	-	-	-	-	-	-	1	1	-	1	1	7	14						
만 3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2	-	-	4	6	4	20	36				
합			44	39	23	1	2	5	31	17	35	3	5	4	42	5	1	4	3	46	24	4	1	12	19	26	24	1	12	22	16	39	51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表 1-4.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人口의 特性

N (%)

단계		1	2	3	4	5	6	7	계	
남 편 과 아 내 의 연 령	항목									
	만 24세 이하	* 2	—	—	—	—	—	—	—	2
		24	7	—	—	—	—	—	—	31
	만 25 ~ 29	* 17	8	—	—	—	—	—	—	28
		19	40	2	—	—	—	—	—	59
	만 30 ~ 34	* 3	44	8	—	—	—	—	—	71
		3	15	47	4	—	—	—	—	69
	만 35 ~ 39	* —	11	53	8	—	—	—	—	75
		—	3	36	54	—	—	—	—	93
	만 40 ~ 44	* —	2	24	78	5	1	—	—	130
		—	—	3	73	22	9	3	—	110
	만 45 ~ 49	* —	—	3	46	22	12	2	—	85
—		—	—	10	44	13	9	—	76	
만 50 ~ 54	* —	—	—	7	42	10	18	—	77	
	—	—	—	—	16	14	22	—	52	
만 55 ~ 59	* —	—	—	—	9	11	15	—	35	
	—	—	—	—	—	—	12	—	12	
만 60세 이상	* —	—	—	—	2	—	11	—	13	
	—	—	—	—	—	—	8	—	8	
(*남편) 사 망	* —	—	—	2	2	2	8	—	14	
	—	—	—	—	—	—	—	—	—	
자 녀 의 나 이 차	0 세	44(100)	37(56.9)	6(68)	3(21)				90(17.6)	
	1 ~ 3 세		28(43.1)	47(53.4)	28(19.9)	8(9.4)			111(21.8)	
	4 ~ 6 세			23(26.1)	67(47.5)	36(43.9)	12(33.3)	8(14.8)	146(28.6)	
	7 ~ 9 세			10(11.4)	26(18.4)	24(29.3)	12(33.3)	11(20.4)	83(16.3)	
	10 ~ 12 세			1(1.1)	16(11.3)	11(13.4)	6(16.7)	11(20.4)	45(8.8)	
	13 ~ 15 세			1(1.1)		2(2.4)	5(13.9)	11(20.4)	19(3.7)	
	16 세 이상				1(0.7)	1(1.2)	(2.8)	13(24.1)	16(3.1)	
자 녀 의 수	자녀 없음	44(100)							44(8.6)	
	1 人		41(63.1)	7(8.0)	4(2.8)				52(10.1)	
	2 人		24(36.9)	56(63.6)	28(19.9)	10(12.2)	1(2.8)	2(3.7)	121(23.7)	
	3 人			22(25.0)	79(56.0)	47(57.3)	15(41.7)	7(13.0)	170(33.3)	
	4 人			3(3.4)	26(18.4)	19(23.2)	11(30.6)	22(40.7)	81(15.8)	
	5 人				3(2.1)	4(4.9)	7(19.4)	10(18.5)	24(4.7)	
	6 人				1(0.9)	2(2.4)	1(1.8)	5(9.3)	9(1.7)	
	7 人						1(2.8)	5(9.3)	6(1.1)	
8 人 이상							3(5.6)	3(0.5)		
가족 형태	핵 가족	31(70.1)	53(81.5)	57(64.8)	96(68.1)	71(86.6)	32(88.9)	33(61.1)	373(73.1)	
	확대 가족	13(29.9)	12(18.5)	31(35.2)	45(31.9)	11(13.4)	4(11.1)	21(38.9)	137(26.9)	
	계	44	65	88	141	82	36	54	510	

1, 2, 3 段階에는 비교적 高等教育이 必要한 事務職의 비율이 높으며 5 段階에는 專門·經營職이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段階가 높을수록 販賣·서비스職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ㄷ. 住居樣式

1, 2 段階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6, 7 段階에는 연립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ㄹ. S. E. S(社會·經濟的 地位)*

表 1-5.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社會·經濟的 特性

사 회		단 계	1	2	3	4	5	6	7	계
남편의 학력	무 학		-	-	-	2(1.48)	2(2.44)	1(2.78)	9(16.7)	14(2.75)
	국 출		-	-	1(1.14)	10(7.97)	2(2.44)	4(11.1)	6(11.2)	23(4.59)
	중 출		5(11.3)	4(5.11)	6(1.89)	22(15.6)	6(7.35)	5(11.1)	6(11.2)	54(15.8)
	고 출		8(18.1)	18(27.7)	39(44.2)	54(41.1)	28(34.1)	16(50.0)	12(22.2)	175(43.3)
	대 출 이상		31(72.1)	43(66.2)	42(47.7)	53(37.5)	44(53.6)	10(27.7)	21(38.8)	244(47.8)
남편의 직업	전문·경영직		11(25.0)	21(18.1)	22(85.0)	33(23.4)	29(35.4)	8(22.2)	10(18.5)	125(24.5)
	사무직		25(56.5)	35(79.5)	29(33.0)	32(22.7)	21(25.6)	7(19.4)	9(16.7)	158(31.0)
	판매·서비스직		4(9.9)	7(15.1)	23(26.1)	47(33.3)	18(22.0)	11(30.6)	10(18.5)	118(23.1)
	생산직		4(9.9)	8(50.2)	9(10.2)	22(15.6)	5(6.1)	4(11.1)	4(7.4)	56(11.0)
	기타		1(2.2)	1(2.3)	2(2.3)	5(3.5)	8(9.8)	4(11.1)	21(38.9)	42(8.2)
S·E·S	상		5(11.4)	8(12.3)	10(11.4)	14(9.9)	21(25.6)	4(11.1)	11(20.4)	73(14.3)
	중		15(34.1)	27(41.5)	35(39.8)	44(31.2)	34(41.5)	11(30.6)	14(25.9)	180(35.3)
	하		24(54.5)	30(46.1)	43(48.8)	83(58.8)	27(32.9)	21(58.3)	29(53.6)	257(50.4)
주거양식	단독주택		21(47.7)	34(52.3)	60(68.2)	121(85.8)	67(81.7)	26(72.2)	46(85.2)	375(73.5)
	아파트		14(31.8)	24(36.9)	5(5.7)	5(3.5)	6(7.3)	2(5.6)	3(5.6)	59(11.6)
	연립주택		9(20.5)	7(10.8)	23(26.1)	15(10.6)	9(11.0)	8(21.2)	5(9.3)	76(14.9)
계		44	65	88	141	82	36	54	510	

註 * 관련문헌(고영복, 현대사회학, 법문사, 1977, pp 214~215와 김영모,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을유문화사, 1969, pp 603~618)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접수	남편의 학력	아내의 학력	남편의 직업	총 수입	주택의 자가평가액	분 류
1	무 학	무 학	무직·기타	20 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	이상의 접수를 모두 합하여 15점이 하는 "하" 16~20점은 "중" 21점이상은 "상" 으로 하였다.
2	국 출	국 출	생산직	21~35 만원	501~1000 만원	
3	중 출	중 출	판매·서비스	35~50 만원	10001~2500 만원	
4	고 출	고 출	사무직	51~65 만원	2501~4000 만원	
5	대출이상	대출이상	전문·경영직	65 만원 이상	4051 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上·中·下에 거의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른 段階에 비해 5 段階와 7 段階에 上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研究問題 II]의 結果와 分析

(1) 收入과 生活費, 그리고 貯蓄은 家庭生活週期の 단계에 따라 어떻게 變化하는가?

① 收入構造

家庭의 收入은 獲得源에 따라 家口員에 依한 所得과 資産에 의한 所得으로 區分할 수 있다. 家庭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른 家口員의 就業率과 所得, 그리고 財産所得이 있는 비율과 所得額을 보면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1 段階: 男便의 就業率은 높은 水準이나 所得은 男便이 隱退期에 들어선 7 段階 다음으로 낮은 水準을 보인다. 이것은 男便의 職業上 地位가 아직 安定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아내의 就業率과 所得은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인다. 總收入에 차지하는 各 所

得의 構成比는 男便의 所得 73.1%, 아내의 所得 20.8%, 財産所得 6.3%로서 아내의 所得이 家計收入에 寄與하는 바가 크며 家口員에 의한 所得이 全體 所得의 93.9%를 차지하고 있다.

2 段階: 1 段階에 비해 男便의 所得은 약간 增加하였지만 아내의 就業率이 약 11% 減少하며 所得도 1 段階의 절반수준으로 急減하여 男便所得의 增加額이 아내所得의 減少額에 미치지 못한다. 財産所得이 있는 比率는 1 段階에 비해 增加하였으나 所得은 낮은 水準이다. 總收入의 構成比는 男便所得 81.2%, 아내所得 12.1%, 其他家族의 所得 2.5%, 財産所得 4.3%이다. 아내의 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이 1 段階에 비해 약 8% 減少한 대신 男便의 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은 8.1% 增加하므로써 家計에 있어서 男便의 參與度가 加重된 時期라고 할 수 있겠다.

3 段階: 男便의 就業率은 1, 2 段階와 비슷한 水準으로 所得은 2 段階에 비해 增加되었다. 아내의 就業率이 낮아졌으나 所得은 2 段階와 비슷한 水準을 보이는 것은 아내의 職業上 位置가 그만큼 향상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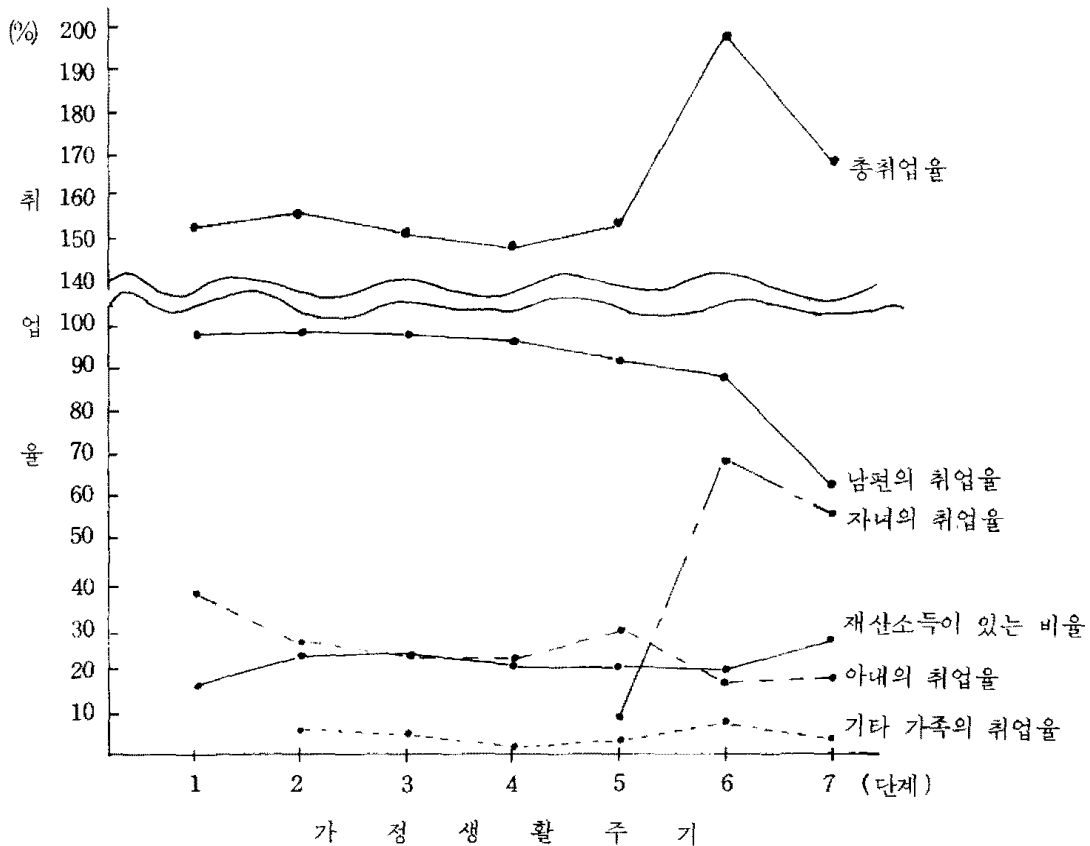


그림 1-1. 段階別 就業率.

다는 것을 示唆한다고 할 수 있겠다. 總收入의 構成比는 男便所得 80.4%, 아내所得 10.7%, 其他家族의 所得 2.2%, 財産所得 6.6%로써 家口員에 의한 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이 약간씩 減少한데 반해 財産所得의 比率이 增加하므로써 資産의 蓄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段階：男便과 아내의 就業率, 그리고 財産所得이 있는 比率과 所得은 3 段階에 비해 낮은 水準을 보이므로써 3 段階보다 向上되리라는 一般的인 생각과 符合되지 않는 結果를 보이는데 그 原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段階別 標集에 의한 標集誤差에 의한 것인지 기타 다른 要因이 作用된 것인지에 대해 보다 細密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하겠다. 總收入은 男便所得 82.8%, 아내所得 8.4%, 其他家族의 所得 2%, 財産所得 6.8%로 構成되어 있어 以前段階에 비해 아내의 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은 減少되고 男便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3 段階에 이어 男便의 責任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段階：男便의 就業率은 以前 段階에 비해 약 7~8%가 減少된 比率을 보이는데 男便의 연령층이 단 40~44歲부터 만 60歲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男便이 서서히 退職時期에 進入하는 時期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男便의 所得은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어 大部分의 男便은 職業上 地位가 最高에 達한 時期라고 볼 수 있겠다. 아내의 就業率은 2 段階보다 높은 比率을 보이고 所得 역시 1 段階 다음에 해당되는 높은 水準을 보여 李溫竹(1969)의 研究와 一致되지 않는 結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0年 前에 비해 既婚女性의 就業條件이 向上되었으며, 子女가 成長하므로써 아내에게 餘暇의 時間이 생겼을뿐더러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보다 積極的으로 解決하려는 아내의 意志가 作用했기 때문에 解析할 수 있겠다. 子女의 就業率은 10% 未滿으로 所得도 낮은 水準이지만 子女의 所得이 나타나기 始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其他家族의 就業率과 所得은 낮은 水準이며 財産所得이 있는 比率은 4 段階와 같으나 財産所得額은 약간 增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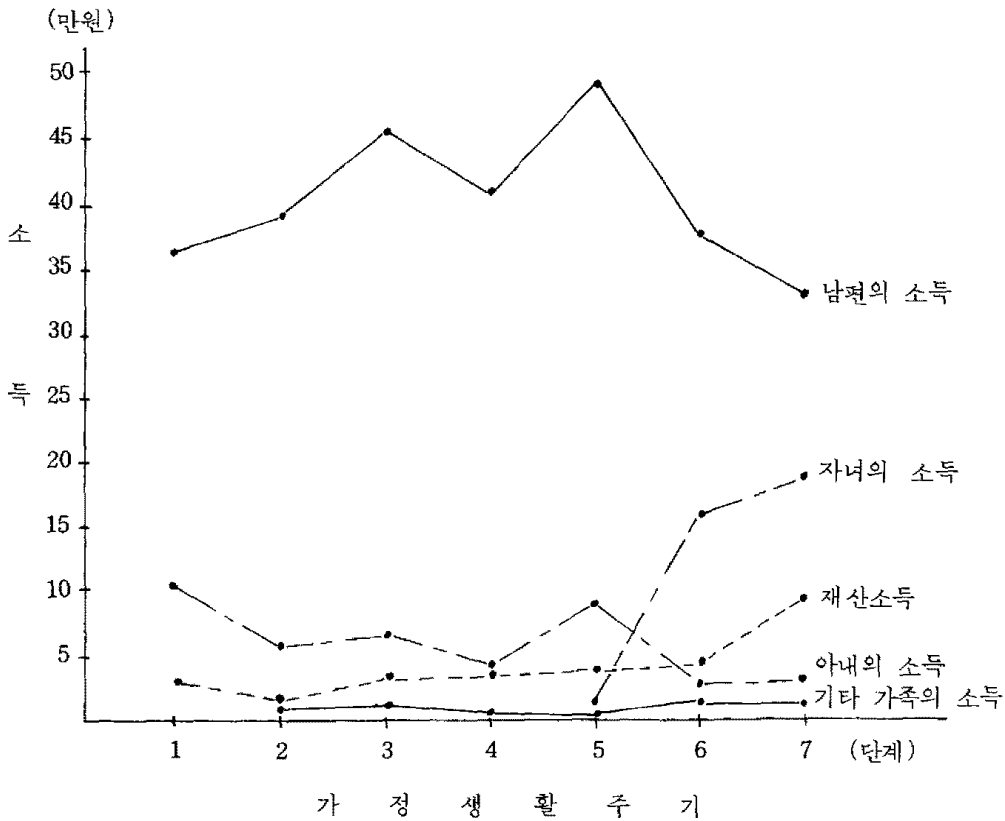


그림 1-2. 段階別 所得構造.

總收入의 構成比는 男便의 所得 76.9%, 아내의 所得 13.6%, 子女의 所得 3.0%, 其他家族의 所得 0.9%, 財産所得 5.7%이다. 즉 總收入에 차지하는 男便所得의 比率이 減少하고 아내所得의 比率이 增加하였으며 財産所得의 比率은 4 段階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6 段階: 男便과 아내의 就業率과 所得이 減少한 反面, 子女의 就業率과 所得이 急增하여 增加額은 夫婦 所得額의 減少額을 充當할 수 있을만한 額數로써 夫婦 所得의 減少로 인한 家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한다. 總收入은 男便의 所得 59.8%, 아내의 所得 5.3%, 子女의 所得 25.2%, 其他家族의 所得 2.3%, 財産所得 7.4%로 構成되어 있다. 男便과 아내所得의 比率이 낮아졌고 子女所得의 比率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資産에 의한 所得도 增加趨勢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段階: 男便의 所得은 가장 낮은 水準이다. 職業이 無職인 比率이 38.8%로써 男便이 社會活動에서 점차 隱退하는 時期라고 볼 수 있다. 子女의 就業率은 6 段階에 비해 약 15%가 減少하였는데 이것은 既婚子

女와의 同居를 묻는 질문에서 「既婚 同居子女 없음」이 66.7%, 「既婚 長男과 同居」가 25.9% 그리고 「기타 다른 子女와 同居하는 比率이 7.4%로써 既婚子女의 過半數 以上이 獨立하므로 家庭內 就業子女의 數가 減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子女의 所得은 6 段階에 비해 높은 水準을 보여 相對的으로 子女들의 職業上 地位가 向上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家族의 就業率은 家庭生活週期 全 段階중 가장 높은 比率이지만 그 所得은 그리 높은 水準이 아니다. 한편, 財産所得은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男便의 退職에 의한 一時所得과 기타 資産蓄積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總收入 가운데 男便所得은 50.5%, 아내소득은 5.3%, 子女所得은 27.6%, 기타家族의 所得은 2.0%, 財産所得은 14.7%를 차지하고 있어 家庭生活週期 全段階 가운데 男便의 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이 가장 낮은 반면 子女所得의 比率은 가장 높으며 財産所得의 比率도 最大值를 보이고 있다.

② 家計構造

家庭經濟는 收入과 支出, 貯蓄으로 構成되는데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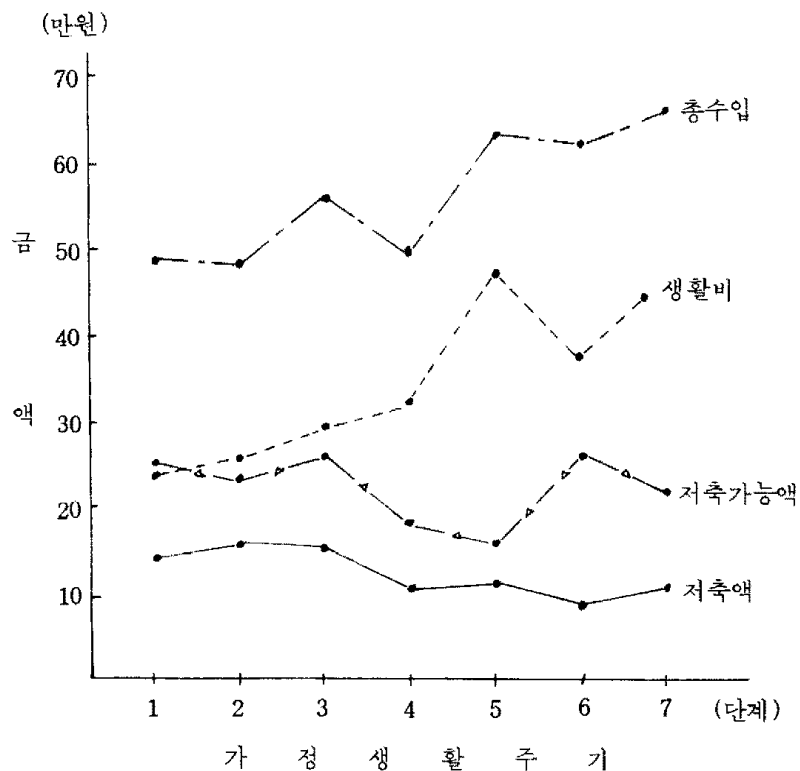


그림 1-3. 段階別 家計構造.

각의 構造的 關係를 家庭生活週期에 따라 보면 그림 1-3과 같다.

1 段階：收入에 비해 生活費가 많지 않으므로 貯蓄可能額이 많은데 비해 貯蓄率(81.8%)은 낮고 실제 貯蓄도 貯蓄可能額의 약 1/2에 지나지 않는다. 즉 資産의 蓄積이 可能的인 時期임에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家計를 運營하도록 하는 教育과 努力이 要求되는 時期라고 하겠다.

2 段階：總收入은 1 段階보다 減少한데 비해 生活費는 增加하였다. 따라서 貯蓄可能額은 減少하였으나 貯蓄은 도리어 增加하여 이 段階의 家計運營은 合理的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段階：總收入은 全體 平均보다 높은 水準을 보이며 生活費는 2 段階에 이어 增加趨勢를 보였다. 總收入의 增加幅이 크므로 貯蓄可能額은 2 段階에 비해 增加되었으나 貯蓄은 貯蓄可能額의 57%에 지나지 않고 貯蓄率 역시 2 段階에 비해 낮은 水準을 보이는데 이것은 所得의 增加에 따라 한계저축성향도 增加한다는 金光錫(1975)의 研究에 違背되는 結果이다. 이 段階는 子女의 教育에 對한 支出이 많지 않기 때문에 資産蓄積에 적합한 時期로써 將來 家族의 欲求와 要求에 對備할 수 있도록 資産蓄積에 적극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4 段階：3 段階보다 總收入은 낮고 生活費는 높다. 따라서 貯蓄可能額도 1,2,3 段階에 비해 매우 낮은 水準에 있게 된다. 貯蓄率에 비해 實際 貯蓄은 貯蓄可能額을 증가하는 注目할 만한 現狀이 보이는데 이것은 貯蓄을 하고 있는 경우 그 單位가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 段階：總收入은 7 段階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水準이며 生活費는 가장 높다. 이 段階는 4 段階와 마찬가지로 生活費의 부담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總收入의 水準이 높기 때문에 家計의 內容的인 運營面에 있어서는 4 段階보다 더 豊富하다고 할 수 있겠다.

6 段階：總收入은 5 段階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 平均보다는 많고, 生活費는 5 段階보다 낮다. 貯蓄可能額은 增加하였는데 貯蓄率과 貯蓄은 顯著하게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어 이 段階에 있어 보다 計劃的이고 積極的인 貯蓄이 要求된다.

7 段階：總收入은 家庭生活週期的 全段階 가운데 가장 높은 水準이며 生活費도 比較的 높은 水準을 보인다. 貯蓄可能額은 比較的 높은 水準인데 비해 貯蓄率과 貯蓄은 6 段階와 같이 낮은 水準을 보여 合理的인 家計運營에 대한 注意가 要求되는 段階이다. 特別히 家族形態의 變化에 따라 老後生活에 대한 個人的인 對策이 時急한 現實을 勘案할 때 이 段階의 家計管理는 큰 重要性을 띤다고 하겠다.

表 2-1. 段階別 貯蓄率과 貯蓄의 目標

목 표 \ 단 계	1	2	3	4	5	6	7	계
부 동 산 구 입	19(52.8)	29(48.3)	17(21.8)	24(20.3)	5(7.6)	2(7.7)	5(11.9)	101(23.7)
자 녀 교 육 비 마 련	5(13.9)	13(21.7)	33(42.3)	50(42.4)	20(30.3)	8(30.7)	6(14.3)	135(31.7)
질 병 및 불 시 재 난 대 비	4(11.1)	6(10.0)	5(6.4)	10(8.5)	2(3.0)	2(7.7)	2(4.8)	31(7.3)
자 녀 의 결혼 이 나 집 안 의 큰 일 을 위 한 특 별 자 금	0(0.0)	3(5.0)	10(12.8)	16(13.6)	34(51.5)	12(46.2)	20(47.6)	95(22.3)
노 후 생 활 안 정	5(13.9)	4(6.7)	8(10.3)	14(11.9)	4(6.1)	0(0.0)	5(11.9)	40(9.4)
기 타	3(8.3)	5(8.3)	5(6.4)	4(3.4)	1(1.5)	2(7.7)	4(9.5)	24(5.6)
계 저 축 율 (%)	36(81.8)	60(92.3)	78(88.6)	118(83.7)	66(80.5)	26(72.2)	42(77.8)	426(83.5)

$\chi^2 = 127.5, df = 30, P < .001$

段階別貯蓄의目標은表2-1과같다.

1段階와2段階에서는不動産購入에가장높은比率을보이며3,4段階는子女教育費마련에5,6,7段階는子女結婚이나집안의큰일을위한特別資金마련에가장크게比重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나1,2段階의家庭을위해서는住宅政策과住宅金融等不動産購入에必要한정보나정책이必要하며3,4段階의子女教育費의增加에보다合理的으로對處하기爲해서家庭生活週期初期段階에子女의出産間隔과子女數에對한計劃이必要하다고본다.

(2)家庭生活週期の段階別收入과生活費,貯蓄에家族形態等の社會·人口學的變因은어떠한影響을미치는가?

男便의所得은家庭生活週期の段階間的主效果에서意義있는差異를보이는데($F = 3.912, P < .001$)이러한有意性은S.E.S와다시2層相互作用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F = 4.294, P < .001$).

이結果는그림1-4에서보듯이S.E.S가上인경우男便의所得은2段階에가장낮은水準을보이지만中인경우는1段階부터완만한曲線을그리며

증가하여6段階에가장높은水準을보인후점차下落하여상식적으로생각할수있는曲線을그리고있다.下는1段階부터점차增加하여3段階를정점으로4段階부터下落하는趨勢를보인다.

아내의所得은家庭生活週期の段階에따라有義한差異를보이는데($F = 2.870, P < .01$)S.E.S($F = 4.335, P < .001$)와2層相互作用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1-5에서보면남편의職業이無職일때아내의所得은가장높은데특히2段階와3段階에높은水準을보이고있다.男便의職業이專門·經營職인경우는1段階에가장높은水準을보이고점차낮아지다가5段階에다시높은水準을보인후下落하는傾向을보이며事務職은3段階와5段階에그리고販賣,서어비스職은6段階에높은水準을보이고있어男便의職業의性格에따라아내의所得이달라지는것을알수있다.

家庭生活週期の段階및S.E.S에따른아내의所得은그림1-6에서보는바와같이S.E.S가上인경우는1段階에높은水準을보이고以後낮은水準을보이다가6,7段階에所得이전혀없는데中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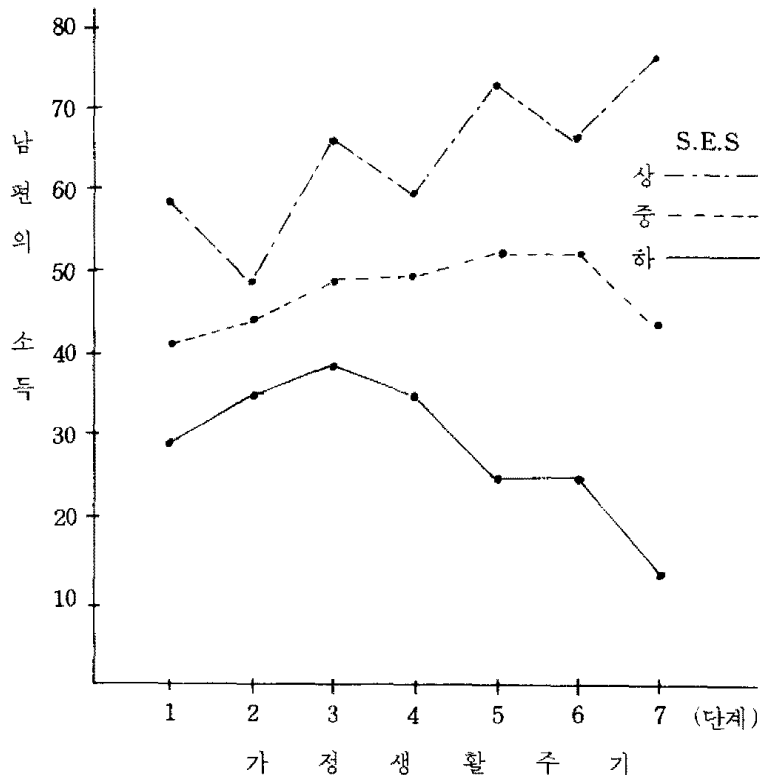


그림 1-4. 段階 및 S.E.S에 따른 남편의 所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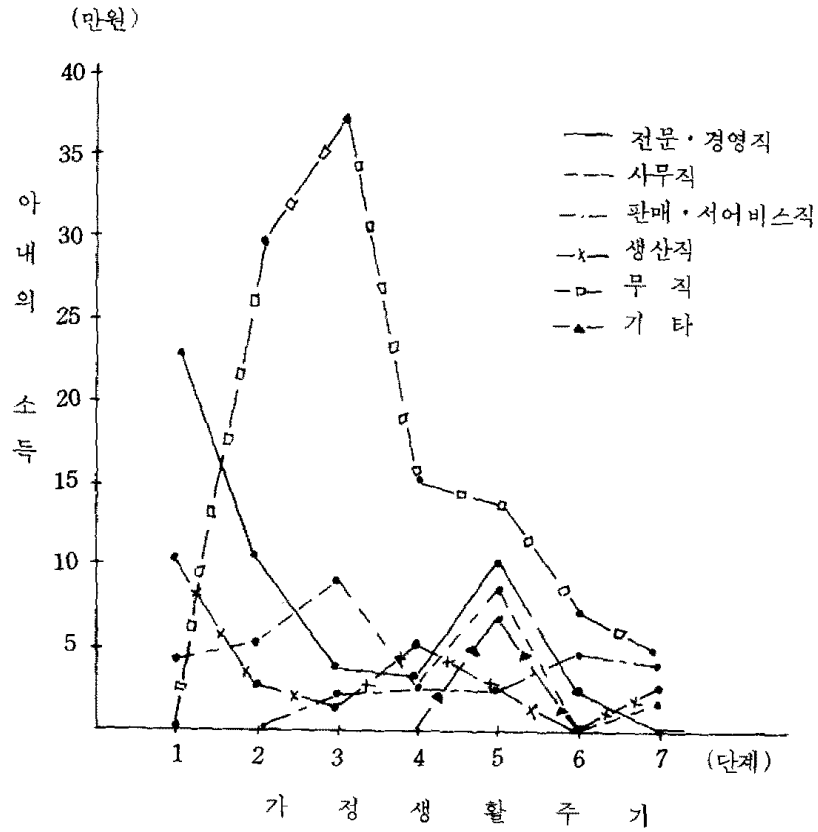


그림 1-5. 段階 및 남편의 職業에 따른 아내의 所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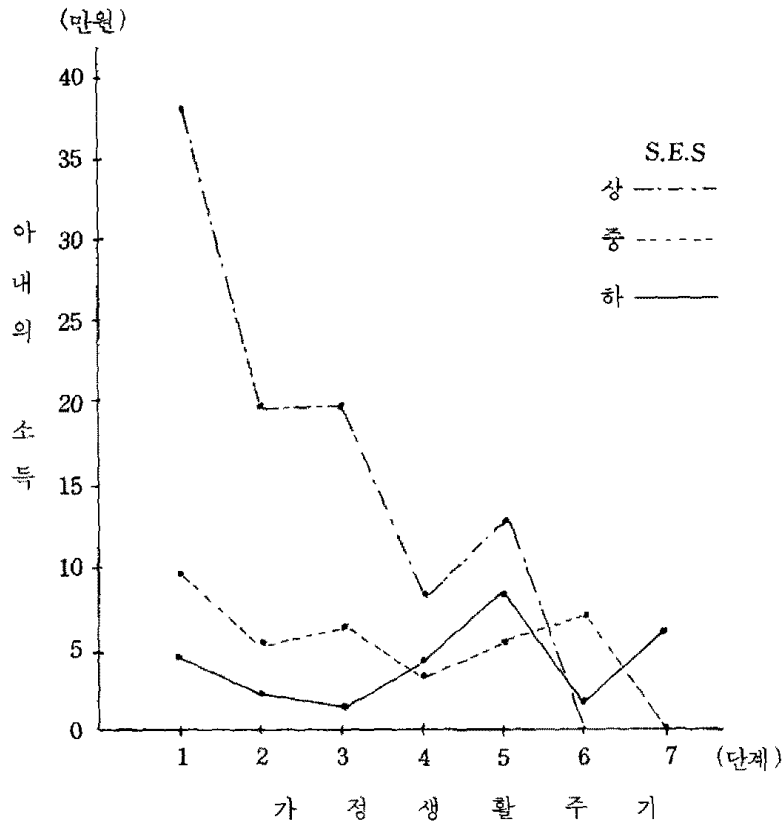


그림 1-6. 段階 및 S.E.S에 따른 아내의 所得.

우는 1 段階에 가장 높고 比較的 完만한 假想型 曲線을 그리며 進行되다가 7 段階에 所得이 없으며 下인 경우는 1 段階에서 3 段階까지 계속 下落하다가 3 段階부터 增加하여 5 段階에 項點에 이르며 7 段階에도 比較的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子女의 所得은 家庭生活週期の 段階間에 有意한 差異가 있는데($F=57.879, P<.001$) 다른 變因과 모두 2 層相互作用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其他家族의 所得은 家庭生活週期の 段階間에 意義 있는 差異가 없었으며($F=0.340, P>.05$) 家族形態에 의해서만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F=11.494, P<.001$).

그밖에 家庭生活週期の 段階間에 財産所得($F=2.645, P<.05$)과 生活費($F=20.843, P<.001$), 貯蓄($F=4.277, P<.001$) 등의 變因은 有意한 差異를 보였으나 關聯變因과의 2 層相互作用에 의해서는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家庭生活週期の 段階를 區分하기 위하여 夫婦의 年齡과 結婚期間, 子女의 教育狀態 등의 相互關聯性을 分析한 結果 結婚期間과 첫 子女의 教育狀態를 區分 因子로 선정하여 7 段階로 區分하였다.

- 1 段階: 子女出産前 夫婦단의 家庭
- 2 段階: 첫 子女가 乳兒이거나 未就學인 家庭
- 3 段階: 첫 子女가 國民學校에 다니는 家庭
- 4 段階: 첫 子女가 中·高等學校에 다니는 家庭
- 5 段階: 첫 子女가 大學校나 大學院에 다니는 家庭
- 6 段階: 첫 子女의 教育이 끝나고 아직 既婚子女가 없는 家庭
- 7 段階: 첫 子女의 教育이 끝나고 既婚子女가 있는 家庭

2)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別 家計動向을 分析한 結果 其他家族의 所得을 除外하고 모두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段階別로 家計狀況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段階: 男便의 所得은 낮은 水準이며, 아내의 就業率과 所得은 家庭生活 全段階中 가장 높다. 生活費는 가장 낮은 水準이며 貯蓄可能額에 비해 貯蓄率과 貯蓄은 낮은 水準을 보인다.

2 段階: 男便의 所得이 약간 增加하는데 비해 아내

의 所得은 激減하여 總收入이 1 段階보다 낮은 水準을 보인다. 生活費가 增加하여 貯蓄可能額은 減少하였으나 貯蓄은 增加한 水準을 보이며 貯蓄의 目標은 住宅購入이 가장 많다.

3 段階: 總收入과 生活費는 增加된 傾向을 보이지만 貯蓄은 2 段階보다 減少하였으며 貯蓄의 目標은 子女의 教育費 마련이 가장 많다.

4 段階: 總收入은 3 段階보다 낮으며 生活費는 增加하였다.

5 段階: 總收入은 家庭生活週期 全體에 걸쳐 두번째로 높은 水準으로써 男便所得은 가장 높다. 2 段階以後 下落되었던 아내의 所得이 增加한 時期이며 生活費도 역시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인다.

6 段階: 男便과 아내의 所得이 急激히 減少하였으며 子女의 所得이 急增한 時期로 總收入과 生活費는 5 段階보다 減少하였다. 貯蓄可能額에 비해 낮은 貯蓄 水準을 보인다.

7 段階: 總收入이 가장 많은 時期이며 生活費도 比較的 높은 水準이다. 收入가운데 夫婦의 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子女와 財産에 의한 所得이 높은 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3) 段階別 家計狀況에 意義있게 影響을 미친 變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家族形態는 段階別 子女의 所得에, 男便의 職業은 아내의 所得과 子女의 所得에 의의있게 影響을 미쳤다. 또한 段階別 子女의 所得은 男便의 學歷에 따라서, 그리고 男便의 所得, 아내의 所得, 子女의 所得은 S.E.S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以上の 研究結果 家計狀況은 家庭生活週期の 進行에 따라 그 內容과 構造的인 面에서 差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安定된 家計運營을 爲해서는 家庭生活週期の 進行에 따라 家計의 變動을 把握하여 그에 적절히 對備하는 것이 重要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提言한다.

(1) 總收入이 많은 時期와 就業率은 밀접한 關係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家計의 所得을 增加시켜 安定된 家庭生活를 하기 爲해서는 單一의 收入源에 依存하지 않고 여러 種類의 收入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2) 家庭生活週期の 1,3,6 段階는 家計構造에서 資産 蓄積의 可能性이 많은 段階이므로 將來 消費를 爲해 現在의 消費欲求를 移傳시키는 合理的인 家計運營의

姿勢가 要望된다. 특히 1 段階에서는 2 段階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아내 所得의 減少와 子女出産에 의한 高額의 一時支出과 子女育兒費의 增加에 對備하기 위하여, 3 段階에는 子女의 성장에 따라 家計가 膨脹되고 教育費의 增加로 인해 家計運營이 어려워지는 4, 5 段階에 對한 準備를 爲해 6 段階에는 將來 子女의 結婚과 같은 特別支出이나 安定된 老後生活의 基盤을 마련하기 爲해 積極적인 資産蓄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家庭經濟的인 側面에서 갖는 家庭生活週期 概念의 効用은 政策樹立의 차원에서 充分히 効力を 갖는다고 생각되며 그를 위해서는 보다 精確하고 細密한 資料調査에 의한 精確한 分析이 要求된다고 본다.

또한 家庭生活週期の 段階別 家計狀況은 關聯變因에 따라 다른 特性을 內包하게 된다는 것에 注目하여 보다 多樣的인 研究方法에 의한 多角的인 研究가 時急하다고 생각되며 本 研究에서 누락된 子女가 모두 獨立한 段階에 對한 研究도 앞으로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김영복 : 현대사회학, 법문사, 1977.
- 2) 고려대학교 인구조육위원회편 : 인구문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 3) 국립중앙직업안정소 : 한국직업사전, 1982.
- 4)金光錫 : 한국 가계의 저축형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4, 1975.
- 5) 金善姬 : 도시가족의 생활주기 및 그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6) 金泳模 : 한국농촌가족의 생활주기측정, 농촌사회연구 제 1 집, 숭실대학, 1965.
- 7) 金泳模 :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69.
- 8) 徐炳淑·任貞彬 : 가정관리학, 동명사, 1982.
- 9) 薛鳳植 : 한국가계의 소비행위, 창문자, 1978.
- 10) 李溫竹 : 도시 중류가족의 생활주기에 관한 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 11) 李効再 :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 12)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한국인의 장기생활실제연구, 열매문고 11, 1980.
- 13) 崔銀淑 : 장기 가계계획 모형에 관한 연구—서울봉급생활자의 결혼이후 은퇴까지의 가계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6.
- 14) 崔在錫 : 한국가족의 주기, 김두현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64.
- 15) 崔在錫 :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75.
- 16) 小林茂 : 農民家族週期の經濟學的研究, 社會科學ジャーナル, 1961, 3.
- 17) 橫山光子 : 家庭の經濟計劃とライフサイクル, 國民生活研究, 4: 6, 1965.
- 18) 森岡清美 : 家族週期論, 東京: 培風館, 1973.
- 19) 森岡清美 : 新家族關係學, 東京: 中教出版, 1974.
- 20) 江見康一·伊藤秋子 : テキストブック家庭經濟學, 東京: 有斐閣, 1982.
- 21) Bigelow, H.F. : *What are usual family patterns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42 No 1, 1950.*
- 22) Burk, M.C. : *About Family Economic Behavio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6, 1966.*
- 23) Duvall, E.M. : *Family Development. 4th ed., Philadelphia : J.B. Lippincott, 1971.*
- 24) Duvall, E.M.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 J.B. Lippincott, 1977.*
- 25) Fitzsimmons, C. and F. Williams : *The Family Economy, Michigan: Edward Brothers, 1973.*
- 26) Glick, P.C. :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in S.M. Lipset and N.T. Smelser (ed.), Sociology : The Progress of a Decad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61.*
- 27) Goode, W.J. : *The Family, New Jersey : Prentice-Hall, 1964.*
- 28) Gross, I.H., E.W. Crandall and M.M.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73.*
- 29) Lansing, J.B. and L. Kish :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R.W. O'Brien*

- et al(ed.), Readings in General Sociology, Boston : Houghton Mifflin, 1964.*
- 30) Nickell, P. and J.M. Dorsey :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67.*
- 31) Nock, S.L. . *The Family Life Cycle : Empirical or Conceptual Too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9.
-

